

Friday, July 4, 2008 / 제 21권 5호 통권 122호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KOSTA/USA 2008 시카고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동안 '이 시대에 바른 길로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daily theme에 맞추어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주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마지막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은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45). 비록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러한 삶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또한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코스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마지막날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오전 - 마지막 조별 아침식사와 QT 후에 파송의 축제를 갖습니다. 파송의 축제에서는 윤국진 목사께서 말씀해주시고, 성찬식과 악수레으로써 파송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코스타 컨퍼런스동안 Kids KOSTA를 통해 예수님께 배우고 경험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파송의 축제에서만 가질 수 있는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

Daily Themes

월: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화: People of the Kingdom

수: The Kingdom, here on earth

목: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금: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2008 코스타 넷째날 이야기

코스타 넷째날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오전 강의에서 화종부 목사는 고린도전서 1:18-25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은 다름아닌 십자가의 길로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험하고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그 죄에서 파생된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못박으신 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내 삶을 허비하는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살아날 것입니다.

김현희 목사의 추천도서 소개 시간이 오전 강의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 코보에 실린 3권의 책과 더불어 김현희 목사는 2권의 책을 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레베카 피켓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기독교 유신론으로부터 이신론, 자연주의로 변화되어 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 바로 그 2권의 책입니다.

이어진 금식기도 시간에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북한땅과 탈북자, 고아를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양과기대와 통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미나 세션 및 tmKOSTA 세션 후에는 마지막 저녁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 아직 때가 낮아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3-4를 묵상한 저녁설교에서, 손창남 선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 떠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초청에서 많은 코스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쫓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로 헌신한 코스탄을 축복하였습니다. 기도의 밤에서 지난 나흘간 다루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한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감을 아쉬워하는 많은 코스탄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조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새로이 만난 기쁨을 되돌아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설연재 4]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를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죄로 왜곡된 이 세상은 분리와 차별의 사회이다. 이곳에서 서로간의 소통은 사라지고 오해와 반목과 갈등만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나라를 거스르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이런 세상을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겸손의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 오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로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죄로 갈라진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다른 언어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지향점은 그리스도 한 분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피조 세계와 인간은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와 회복된 관계를 갖고 구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화해에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므로 다른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왜곡된 세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되찾고 그 나라에서 그분의 뜻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전달된 그 나라는 이어져 이제 이곳 휘튼 코스타 수양회에까지 전달되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되는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자신을 다 내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며 그 뜻을 실현시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이 요청에 응답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누가 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다. 우리는 인간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단한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책임과 중요성을 믿고 그 공동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그것에 부응하는 청지기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가정이 그분의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기를 바란다.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우리를 희생하여 그들을 돌볼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믿는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되심을 믿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가까이 헌신하려고 한다. 열방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애대개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한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



미주 한인 복음운동의 소통의 장!

eKOSTA (<http://www.ekosta.org>)는 KOSTA/USA의 팀 블로그로서, 목회자 및 학생, 배우자, 선배 코스타 등 다양한 필진들이 이론적인 강의부터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글을 기고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10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쓰여진 총 698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타의 감동과 결단을 삶의 현장으로! 라는 모토의 eKOSTA를 통해 여러분은 코스타의 강의와 세미나를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강사 인터뷰 및 코스타의 삶의 간증, 정기적으로 기고되는 칼럼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투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ekosta@kostaus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My bones suffer mortal agony as my foes taunt me, saying to me all day long, "Where is your God?"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Psalm 42:10-11)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전 우주에 미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시간을 규율하신다고 우리들은 믿는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세상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된다면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 고난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의 나라가 번창하며 이 우주에는 왜 죄와 악이 번성하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악과 무질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번창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세상나라의 질서, 그리고 악의 주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분(sustainer)이라는 믿음, 역사를 전지와 전능, 그리고 전적인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자주 우리들은 심각한 악의 존재에 이런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버리거나,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전적인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것 같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전제되어 있다. 심지어 사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욥은 하나님께 항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한다. 욥의 항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에게 닥쳤던 일들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대답은 욥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 형성되었던 믿음과 신뢰에 대해 지적하신다. 우주와 세상의 운행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과거에 그에게 쌓인 믿음과 신뢰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다. 지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고통의 당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악과 그 악의 결과에 의한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하나님이신가. 세상에서 생기는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뿐 아니라 그와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하신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악의 결과인 죽음을 스스로 감당한 사건인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하나님 나라의 운행의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들의 지적인 한계로 역사와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발전되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영적인 결단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근거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향한 역사의 발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 †

기획기사연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 보이스는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기획기사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 기획기사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 기획기사 4**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강사 인터뷰]



노창수 목사

>> 개회예배
 Biola 대학 졸업
 Dallas 신학교 졸업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Youth Pastor)
 동양선교회 시무
 선학성지교회 시무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2008 KOSTAUSA 조직위원장

이 주제에 충실한 말씀을 전하여 반응이 좋았고, 구원과 선교 헌신의 역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타가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스타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보게 됩니다. 집회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형제, 자매들의 주님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헌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코스타를 통해 이 시대에 아직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5. 목사님께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타가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 중심의 집회로 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회의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정신을 놓치게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벤트로 사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6. 코스타가 작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올해는 '이 시대의 바른 길로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코스타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가지가 강조되길 원합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들이 강한 열정으로 사는 삶, 즉 어느 곳에서든지 탁월한 믿음의 실천자로 현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세속적인 기독교인(Worldly Christian)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기독교인(World-Class Christian)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코스타인이 많았고,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영광돌리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코스타인이 남아 있게 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코스타가 앞으로 제시해줘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음세대, 2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비전을 물려줄 것인가를 코스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7. 현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말로 호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성직이라고 믿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며, 성실함을 통한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현장에서 강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23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

1. 올해 미국 코스타 조직위원장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회를 두고 기대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표류하는 사람도 있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Diaspora가 단순히 표류,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기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 개회예배에서 인격, 희생,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코스타에게 어떤 기대로 준비하셨는지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둘째로는 우리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행동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더 희생하고, 좀더 양보하고, 좀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3. 청년들이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일단은 내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한계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즉, 공동체가 앞장서서 한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섬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감동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보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4. 올해 집회가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집회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선 핵심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사님들

[코스타 영화평 5] 선교, 사회참여

오늘 코스타 서평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영화 중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몇 가지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득력 있게 영상으로 소개한 영화들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독교적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영화평은 http://www.umc.org/site/c.lwL4KnN1LtH/b.2285817/k.644B/Movie_Review_Archive.htm에서, 추천 기독교 영화와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http://artsandfaith.com/t100/>에서 참고할 수 있다.

Dogville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초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고 어떤 때에 선한 의도와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Dogville은 이 죄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Dog과 달리 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는 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다. 영화는 죄는 그것이 외부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있는 평화로와 보이는 작은 마을의 순박한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도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연극 같은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hildren of Men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식민지와 피식민지 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점점 심해지는 식민정권의 억압정책으로 강제로 호주조사에 응하는 여정에서 인간이 누울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장 약해보이는 생명의 아기였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을 현실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있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밀양

하나님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제시하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오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 퍼져있는 것 같다. 예수님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낮아진 곳을 향하고 있던 '숨어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곧 힘과 영광의 실체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빈 곳과 초라한 곳, 약한 곳과 병든 곳, 낮은 곳과 조용한 곳에 비치고 있는 햇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영봉의 책 '숨어계신 하나님'은 이 영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소그룹에서 함께 읽고 나누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Cider House Rules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John Irving의 원작소설을 영화한 작품. 주인공인 Homer의 가출과 귀환은 성서의 탕자의 비유를 모티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Dr. Larch는 강요하지도 않고 아들의 결정을 들어주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규칙도 그 근본이 사랑일 때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힘에 근거한 규칙은 사랑에 기반한 규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과 공명하고 있다. 결국 한 사람을 진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잔잔한 영상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Amazing Grace

영국의 노예무역제도 폐지 200주년 기념작, 노예무역폐지를 성경적 소명으로 받아들인 William Wilberforce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다. 윌버포스가 당시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노예무역을 폐지운동을 벌이던 감리교회 공동체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끝내 노예무역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긴 여정에 그리고 있다. 개인적인 소명과 공동체적인 비전 안에 기독교적 비전을 꾸준히 추구해간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eKOSTA + gpKOSTA

“코스타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코스타 2008 수양회가 오늘로 대관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스타 2008 집회는 곧 끝나지만 코스타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스타는 일년 내내 계속되는 복음주의 학생운동이고, 또한 그것을 돕기 위해 계속되는 사역인 eKOSTA와 gpKOSTA가 있다는 뜻입니다.



Gideon Project KOSTA

gpKOSTA는 Gideon Project KOSTA의 약자로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2박3일간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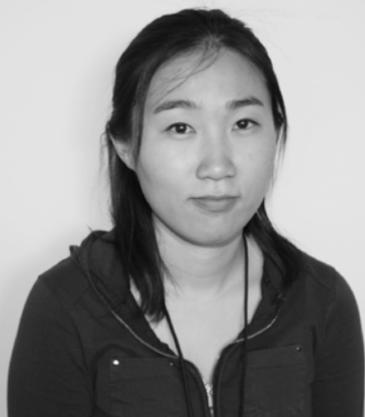
각 지역에서 제자를 양육할 리더를 발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gpKOSTA를 통해 여러분은 제자삼는 삶, 개인성경공부, 섬김의 자세, 세계관 등에 대해서 배우고 QT, 성경공부 인도법 등의 실제적인 훈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평신도 사역자 및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올해는 TX, NY, OK, Southern CA 등의 지역 중 몇 군데에서 gpKOSTA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여러분들을 gpKOSTA를 통해서 계속 넓고 더 깊이 교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코스타와의 만남]

gpKOSTA

조예리 인터뷰



1.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타에는 몇번째 참석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조예리입니다. 현재 경영학 중의 한 분야인 조직행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새누리 침례교회 (CA)를 다니고 있고, KCF라는 캠퍼스 성경공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코스타는 작년에 처음을 참석했고 올해 두번째입니다.

2. 올해 코스타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좋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래 전부터 저희 캠퍼스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분께서 제자들교회의 화중부 목사님 강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강해를 미리 듣고, 섬기는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스타 집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며, 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꿈꾸고 싶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석하여 은혜가 새롭지는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약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조원들 뿐만이 아니라 만났던 새로운 사람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마음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등록하는 순간부터 찬양하는 순간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gpKOSTA에는 언제 참석하셨나요? 참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올해 3월말에 gpKOSTA-SF/Bay Area에 참석했습니다. KCF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서

로 몸같이 사랑하는 천국의 공동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작년 여름에 귀납적 성경공부, QT, 세계관 등에 대한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하게 필요를 느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었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모임은 2-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장소, 홍보, 세미나 주제 등을 고민했고, 또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4. gpKOSTA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결단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다른 지체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맞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특히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이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 주님께 예배로서 제 평생을 바쳤는지 여쭙보고 싶은 정도로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

다. 구체적인 결단이라면, 동생이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동생을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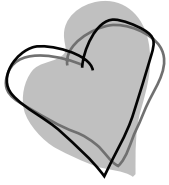
5.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gpKOSTA 이후에 지역에 생긴 변화가 있었나요?

KCF 모임 중에서 리더가 아니었던 두 분이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분은 제 소그룹 조원입니다. gpKOSTA 참석 후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다른 한 분은 이번 시카고 코스타 집회에 조장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섬김의 소망을 품었던 분이 실제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준비되어 가는 것을 목격한 게 감사합니다.

gpKOSTA 후 생긴 변화라면 저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누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지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동역자를 얻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서히 연합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시며 그간 코스타를 섬겨오신 두 분의 목사님께서 gpKOSTA 후에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시용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귀납적 성경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제천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gpKOSTA 때 전부 다루지 못했던 개인성경공부에 대해 보충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6. 어제 오후에 gpKOSTA를 개최하고 싶은 관심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gpKOSTA를 이미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기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준비팀이나 찬양팀으로 섬기든,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참석하시든 꼭 참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Kids KOSTA & Youth KOSTA

매년 코스타 집회에는 어른이 된 우리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부모님과 떨어지기 힘든 만 1살 아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3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Kids KOSTA와 Youth KOSTA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땅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요? 율동과 체조, 간식, 낮잠, 모자와 나비 만들기, 그리고 디즈니 영화 시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영아부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코스타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총 75명의 영아 1,2부의 어린이들이 저녁까지 사고없이 잘 지냈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ischer Hall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셨나요? 84명의 유치부 어린이 코스타가 Fischer Hall Crusade Room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는 찬양과 율동 뿐만이 아니라 달란트 쇼, 그리고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연습한 찬양과 율동을 오늘 아침 파송의 축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유년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Eckert Gym에서는 한 주 동안 올림픽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구요? 118명의 유년부 어린이들은 20여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Super Book Olympic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스킷 발표, 경배와 찬양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udent Recreation Center에서 밴드와 함께 힘찬 찬양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33명의 청소년들이 12명의 교사와 함께 Youth KOSTA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구요.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 스킷, 미니 올림픽 등의 활동으로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